

清明에 죽으나 寒食에 죽으나

문명의 발달이 앞섰던 지구의 북반구에서 동지(冬至)는 태양이 가장멀리, 가장낮게 뜨는 날이다. 이 동지로 부터 105일 째 되는 날이 한식(寒食)이다. 보통 4월 5, 6일이 된다. 청명은(清明)은 춘분(春分) 점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의 황도(黃道)를 24등분한 첫번째 절기로서 대개 4월 5일이 된다. 결국 청명과 한식은 같은 날 이거나 하루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는 뜻으로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속담이 생겼을 것이다.

한식은 설·추석·단오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이지만 다른 음력 명절과 비교하여 양력으로 계산되는 특징이 있다.

찬 음식을 먹는 한식날의 유래에는 뜨거운 불(火)이 있다.

중국 진(晉) 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간신의 농간으로 면산(綿山)에 은거 하였는데 문공(文公)이 그의 충성심을 알고 불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문공은 산에 불을 질러서라도 그를 내려 오도록 하였지만 개자추는 끝내 불타죽고 말았으며, 충신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날만은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이 전설의 줄거리다.

학자간에는 한식이 중국에서 전래한 명절이 아닌 우리의 오랜 풍습으로서, 해마다 이날에는 불조심 계몽행사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무렵은 예나 지금이나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불이 나기 쉽고, 또 불이 나면 그 피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세종 13년에는 관원을 동원하여 큰 길을 돌게 하면서 “한식날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 불을 함부로 피우지 말라”고 외치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 밖에 불과 관련된 우리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아래와 같다.

● 上元(正月 보름)

황혼에 횃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 달을 맞으며 (迎月·望月) 소원을 빈다.

이 무렵 궁중에서는 젊은 환관들이 횃불 행진을 하고, 농촌에서는 쥐불놀이(燠鼠火)와 횃불싸움(炬戰)을 하며 풍년을 기원 한다.

● 清明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로 새불을 일으켜 각 관청에 배분한다.

● 端午(五月五日)

등이 흰 죽잎을 벌에 말려 부식깃(火絨)으로 만들어 두었다.

● 煖爐會(十月 초하루)

번철(燔鐵)을 숯불위에 놓고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으며 닥쳐올 추위에 대비한다.

● 除夕 또는 除夜(설날 그믐)

다락, 마루, 방, 부엌 모두에 불을 켜 놓고 대낮처럼 한다.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모두 센다고 한다.

金 東 —/위험관리부